

사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평화번영과 조국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힘찬 진군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주체108(2019)년 신년사는 지금 북과 남, 해외 온 민족의 가슴가슴을 무한한 환희와 격동으로 뉘뽀게 하고있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출렁이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개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 하고 시면서 새해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투쟁에서 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2018년은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

한해동안에 무려 세차례에 걸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여기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되어 온 겨레를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부풀게 하였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이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 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우리 겨레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23차 겨울철울림경기대회와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을 위해 달려며 공동입장하고 여러 종목에서 무어진 북남단일팀들이 경기에서 우승하여 통일을 높이기 위한 가슴 뭉클한 화목들이 펼쳐졌다.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고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으며 9월평양공동선언에 지적된 대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대관계종식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들도 진행되었다.

북과 남은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설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강자 땅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뜻깊은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는 이 구호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이다.

북과 남의 군사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대관계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북남사이 체결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리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상 조선반도정세강진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

세와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이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저지관사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직히 향유하는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부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게 될 것이다.

현시기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북중시킴으로써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사나. 북남관계문제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비록 외세에 의해 분열되어있지만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으로서 다같이 조국통일에 대한 념원을 간직하고 있다. 조국통일에 사활적인 리해관을 가지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도 우리 민족이다.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마음과 힘을 합쳐야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다.

북남관계문제를 놓고 외세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그의 지지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려 하는것

은 실로 어리석은 처사이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찼던 지난해의 조국통일운동사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북남관계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능히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 해주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통일애국의 숨결로 높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지가 뜨겁게 맥박치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온 겨레를 거룩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뉘내이는데 누구나 투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조국소식

운산메기공장 훌륭히 개건

평양북도에서 운산메기공장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에선 종어 및 알개우기실, 새끼고기호동, 야외비육목, 박막식비육호동, 과학기술보급실과 종합조성실 등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인민생활문제를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메기공장을 자체의 힘으로

개건할 목표에 설계 및 시공력량을 편성하고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실행시켜 공사기간 단축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인민들의 식락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일념으로 운산, 철산군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모든 건축물들을 먼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이 완공하기 위해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매일 공사과제를 넘쳐수행하였다.

련관단위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였으며 운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완공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메기공장이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도안의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새해 첫날 전력생산계획수행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였다.

전력문제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드세한 돌격전을 벌려 련합기업소적인 첫날 전력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

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서 생산자들의 가슴마다에 신년사의 사상을 깊이 새겨주고 그들의 창조열의를 더욱 분출시키기 위한 화선식경제선동과 직강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활기있게 전개하며 생산에서 제기

되는 문제들을 전투적으로 풀어나갔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의 하나가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라는것을 자각한 열성인 1, 2직장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연료소비기준을 낮추고 보일러의 열효율을 최대한 높여 많은 전기를 라빈직장에 보내주었다.

운탄직장, 하차직장에서는 석탄부림설비와 콘베이어에 만가동을 걸어 석탄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였으며 전기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에서든 련대적혁신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보장할 일념으로

고 라빈직장의 로동자들이 주파수에 따르는 증기압력을 잘 타산한데 기초하여 라빈운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라빈발전기효율을 부쩍 끌어올리었다.

중산열기로 뚫어버리는 현장에서 벌어진 국립교에단,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과 만경대, 평천, 중구역 나맹민들의 화선식경제선동은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경쟁의 기치높이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올해 첫 출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주제 108(2019)년을 맞으며 하신 신년사를 1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일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었다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정전협정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또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시었다.

인디아—아시아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은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하지도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

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행동으로 화답해나사한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지들을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것이라고 밝히시었다.

미국대통령과 또다시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 하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다만 미국이 세계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만하면 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리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라고 지적 하시었다.

중국의 환구망, 해외망, 국제방송망, 인디아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힌두》, 《타임스 오브 인디아》, 《스페이츠맨》, ANI통신, NDTV방송, 지 뉴스TV 방송, 이란의 프레스TV방송, 파르스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요신문》, 《마이니케신문》,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BBC방송, 도이칠란트의 데페아통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과 신문 《워싱턴 포스트》,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리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라고 지적 하시었다.

본시기자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는 바와 같이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직히 향유하는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부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기 위해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고있다.

북과 남사이 여러차례의 북남고위급회담들이 진행되고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지난해 9월에는 개성공업지구에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개설되었다. 그런가 하면 북남사이에는 끊어지던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화해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벌여져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

의 슬기와 힘을 펼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고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군사분야에서도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기 위해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고있다.

외세의 간섭과 반동일사대대국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에 대해서도 활발히 진행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사업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흠뻑이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

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선반도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린 오늘 남조선에서도 북남협력사업에 대한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지난해 11월 남조선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으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을 주목하고있다.》, 《남북경협협력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흠뻑이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것》이라는 목소리를 울려나왔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싶어하는 남부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시었다. 이것은 뜨거운 민족애의 표현이고 화해와 협력,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추동하려는 공화국의 의지를 보여주시었다.

이에 남조선의 북남협력관련기업들도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펴며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 때 민족자주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리어금

개성공업지구를 연금해준것만으로도 가슴에 단비같다.》고 반가움을 표시하였다.

현재대로 관계자도 신년사의 내용에 긍정적인 립장을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북미, 남북관계가 잘 풀리실때도 금강산관광개까지 이어지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상응하는 반응이 나오면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것이다.》고 말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을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북중시킴으로써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내외반동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 때 민족자주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리어금